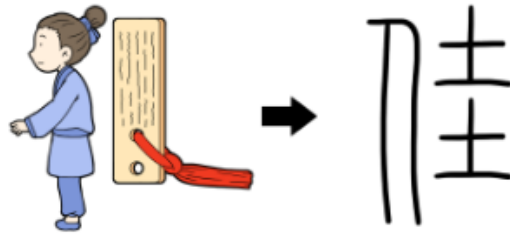


3(2)
-
1

회의문자 ①



佳

아름다울
가:

佳자는 '아름답다', '좋다', '훌륭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佳자는 人(사람 인)자와 圭(홀 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圭자는 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 하사하던 긴 막대 모양의 증표를 그린 것으로 '서옥'이나 '홀'이라는 뜻이 있다. '서옥'은 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圭자에는 '상서로운 옥'이라는 뜻이 있다. 佳자는 이렇게 '상서롭다'라는 뜻을 가진 圭자에 人자를 결합한 것으로 아름답거나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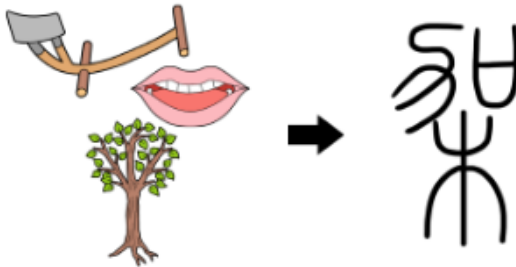
소전

佳

해서

3(2)
-
2

회의문자 ①



架

시렁 가:

架자는 '시렁'이나 '햇대', '가설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架자는 木(나무 목)자와 加(더할 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加자는 '더하다'라는 뜻이 있다. 시렁은 지지대 사이에 얹어놓은 널빤지를 말한다. 기존에 없던 것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하다'라는 뜻의 加자와 木자의 결합은 나무로 만든 널빤지를 추가한다는 뜻이다.

架

소전

架

해서

3(2)
-
3

형성문자①



脚

다리 각

脚자는 '다리'나 '(물건의)하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脚자는 月(육달 월)자와 却(물리칠 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月자와 卻(물리칠 각)자가 결합한 腳(다리 각)자가 쓰였었다. 卻자는 발음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곡을 지나가려는 모습을 그린 것이니 발과 관련된 의미를 조금은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腳자는 본래 사람의 '종아리'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허벅지와 종아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게 되었다. 또 해서에서는 腳자가 脚자로 바뀌었다.

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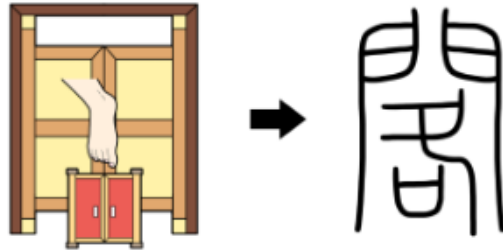
소전

脚

해서

3(2)
-
4

회의문자①



閣

집 각

閣자는 '집'이나 '관서', '층집'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閣자는 門(문 문)자와 各(각각 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各자는 어느 한 지점으로 발이 들어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 閣자는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閣자가 집과 관련된 다른 여러 글자와 구별되는 것은 주로 큰 집을 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閣자는 '층집'이나 '다락집' 또는 '관서'나 '궁전'과 같이 규모가 크거나 행정부와 관련된 뜻으로 쓰이고 있다.

閣

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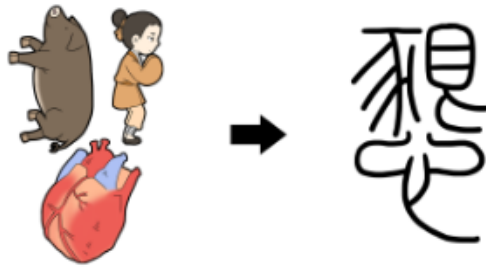
閣

해서

| | | | | | |
|---|---|--|--|----|----|
| <div>3(2)</div> <div>-</div> <div>5</div> | <div>회의문자①</div> <div> </div> | | | | |
| <div>刊</div> <div>새길 간</div> | <p> 刊자는 ‘새기다’나 ‘깎다’, ‘(책을)펴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刊자는 干(방패 간)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본래 ‘깎다’라는 뜻은 𣎵(표할 간)자가 먼저 쓰였었다. 𣎵자는 木(나무 목)자 위에 干(평평할 건)자를 결합한 것으로 나무를 평평하게 깎는다는 뜻이 있었다. 𣎵자는 후에 干자와 刀자를 결합한 형태의 刊자가 되었는데, 여기에 쓰인 干자는 ‘평평하다’라는 뜻의 干자가 생략된 것이다. 그런데 왜 나무를 평평하게 깎는 것일까? 이전에는 나무를 평평하게 깎아 만든 목판에 글자를 새겨 인쇄했다. 그러니까 刊자에서 말하는 ‘깎다’나 ‘새기다’라는 것은 책을 펴내기 위해 목판에 글자를 새긴다는 뜻이다. </p> | | | | |
| |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52 801 831 1010"> </td><td data-bbox="831 801 1410 1010"> </td></tr> <tr> <td data-bbox="252 1010 831 1093">소전</td><td data-bbox="831 1010 1410 1093">해서</td></tr> </table> | | | 소전 | 해서 |
| | | | | | |
| 소전 | 해서 | | | | |
| <div>3(2)</div> <div>-</div> <div>6</div> | <div>회의문자①</div> <div> </div> | | | | |
| <div>幹</div> <div>줄기 간</div> | <p> 幹자는 ‘줄기’나 ‘근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幹자는 𣎵(햇살 빛날 간)자와 干(방패 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𣎵자는 풀썩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햇살이 비추는 모습을 그린 𣎵자에 결합한 干자는 식물의 줄기를 지탱하는 지지대로 응용되어 있다. 가 지나 토마토와 같은 식물은 혼자 힘으로는 줄기를 지탱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줄기식물을 재배할 때는 지지대를 세워주는데, 幹자에 쓰인 干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지지대를 표현하고 있다. 幹자가 어떤 것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의미에서 ‘줄기’나 ‘근본’, ‘말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p> | | | | |
| |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52 1809 831 2018"> </td><td data-bbox="831 1809 1410 2018"> </td></tr> <tr> <td data-bbox="252 2018 831 2101">소전</td><td data-bbox="831 2018 1410 2101">해서</td></tr> </table> | | | 소전 | 해서 |
| | | | | | |
| 소전 | 해서 | | | | |

3(2)
-
7

회의문자①



懇

간절할
간:

懇자는 '간절하다'나 '노력하다', '정성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懇자는 獯(간절할 간)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獯자는 몸을 웅크린 천민을 표현한 것으로 '간절하다'나 '노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미 獯자에 '간절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 心자가 더해진懇자는 본래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즉, 천민들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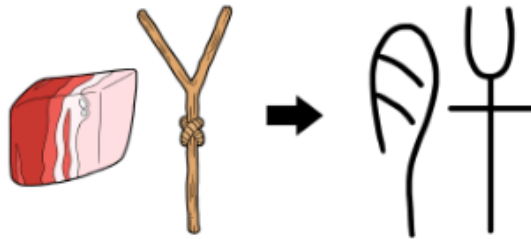
소전

懇

해서

3(2)
-
8

형성문자①



肝

간 간(:)

肝자는 '간'이나 '진심'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肝자는 月(육달 월)자와 干(방패 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月자는 肉(고기 육)자가 변형된 것이니 肝자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干자는 고대에 사용하던 '방패'의 일종을 그린 것이다. 옛사람들이 인체의 기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肝자의 구조로만 본다면 '방어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肝

소전

肝

해서

3(2)
-
9

회의문자①



鑑

거울 감

鑑자는 '거울'이나 '본보기', '식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鑑자는 金(쇠 금)자와 監(볼 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鑑자에 쓰인 監자는 그릇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다'나 '살피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보다'라는 뜻을 가진 監자에 金자가 더해진 鑑자는 '자신을 비춰보는 금속'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대에는 청동의 한쪽을 매끄럽게 갈아 '거울'로 사용했었는데, 監자는 청동거울의 재질과 용도를 설명한 글자이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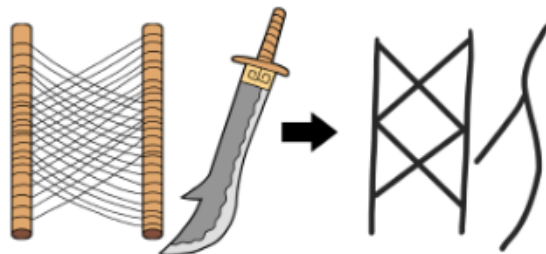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10

회의문자①



剛

굳셀 강

剛자는 '굳세다'나 '강직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剛자는 岡(산등성이 강)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산등성이 자체가 우직하고도 강직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剛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剛자에 있는 刀자는 왜 있는 것일까? 剛자의 갑골문을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갑골문에 나온 剛자는 网(그물 망)자와 刀자가 결합한 𠂔 형태였다. 이것은 그물망이 '견고하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칼로 그물을 찢는 것이 아니라 칼에도 찢기지 않는 그물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금문에서부터는 발음을 위해 网자 가 岡자로 바뀌면서 지금은 剛자가 '강직하다'나 '굳세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